

에베소 6

Now parent-child relationships,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1)

That “in the Lord” I think is important. If your parents are not godly and if your parents are demanding you to do things or requiring you to do things that are improper from a spiritual base, then I do not believe that obedience is required. But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 안에서”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기초에서 볼때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There is the higher conscience to God, where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If what is being required of me would violate my conscience towards God, then that has to be the guiding standard of my life.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의 양심이 있으며 우리는 사람 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킨다면, 내 삶의 기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ven in wives submitting to their husbands, again, there is the guiding standard of your conscience towards God. If your husband is requiring something that would affect your conscience before God, then I do not believe that you have to submit. Your husband isn't really loving you as Christ loved the church or he wouldn't require you to do that. So in all of these issues there is that higher authority of God in our lives and our conscience towards Him.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양심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이라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같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삶과 그를 향한 우리의 양심에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So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6:2)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6:2)

Now, a lot of commandments.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that had a promise attached to it.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earth."

많은 계명들 중에서 이것이 약속이 따르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ight be well with you and your days long upon the earth. Now, you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6:3-4):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6:3-4):

I think one of the cruelest things that I have observed fathers doing sometimes is teasing their children to the point of distraction, getting a kick of the frenzied little child. Holding out a piece of candy or a cookie, and then as they are reaching out, pull it back.

나는 가끔 아버지가 자녀들을 조롱하여 마음이 혼란해져서 조그마한 아이가 열광적으로 되는것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잔인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캔디나 과자를 보이고, 그들이 잡을 만하면 뒤로 빼는것입니다.

Then hold it out and pulling it back, and creating frustration until the child can't handle itself.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that is a cruel thing to do. It is cruel to derive humor or whatever from this kind of teasing of a child. It isn't right. It is mentally abusing the child, but some people get sort of a kick out of seeing a little child just scream in a frenzy by frustration, can't do anything about it.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내밀었다가 잡아당기곤 하면서 아이가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는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정신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I think that we can provoke our children to wrath by demanding unreasonable achievements from them. "After all, it is my child. They have got to be a genius. They are so smart; they are talking before anybody else. They are

walking. My child just has to be super smart and special," and so we sometimes are trying to push them beyond their capacities. Thus, that creates frustration. We need to be careful that we don't push them to the point of frustration.

우리는 아이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달성하라고 강요하여 그들을 노엽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녀야, 그들은 천재가 되어야 해. 그들은 아주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거든. 그들이 걸어 다니지. 내 아이들은 아주 영리하고 특별하게 되어야 해.”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재능 이상으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리하여 좌절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좌절하게 되기까지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but bring them up in the nurture and the admonition of the Lord
(6:4).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4)

Teach them about God, teach them the things of God and the ways of God.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르치십시오.

Servants, [employees] be obedient to your bosses according to the flesh, with fear and trembling, and singleness of your heart, as unto Christ; not with eyeservice, as menpleasers; but as servant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the heart (6:5-6);

종들 (종업원들) 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며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6:5-6);

We are told in the scriptures that whatso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to the glory of Christ, or do what you do as unto Christ. No matter what kind of a job I am doing, I am a witness for Jesus Christ, and therefore, I want to do it good for His sake, so that people will think well of Christianity because the job that I am doing is super special.

I am giving an extra effort. I am not complaining. I am going an extra mile. I am doing more than what is required of me. That my life might be a good witness for Jesus Christ.

누구에게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거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기를 원하며 내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도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더 노력하며 맡은 일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We have many young people that have gone from Calvary Chapel on these kibbutz programs over in Israel, and they have left a good witness because of the way that they work without complaining, their good attitudes. Why? Because they go over and they are working as unto the Lord.

They have taken the right attitude with them. Doing their work as unto the Lord, and it leaves a powerful witness as these in the kibbutz observe their work. Some of the first groups that went over, those in the kibbutzim were determined to really break them. They gave them the dirtiest jobs around the kibbutz.

갈보리 채플에서 이스라엘 키부스 프로그램에 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하신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좋은 태도로 일하므로 아주 좋은 증인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께 하듯 그들의 일을 하여 그들의 일하는것을 본 키부스에 유력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곳에 간 첫 그룹의 몇 사람들에게 그 곳 키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일들을 주어서 그들을 정말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Just pressed them all kinds of stuff, and yet, these kids would do it smiling and rejoicing and with good attitudes. And what they did was break down the kibbutznicks. They said, "Wow, can't believe the way these people respond and react." Why? Because I am doing it as unto the Lord.

There are a lot of times when we are required to do things that are galling to us. Sometimes the boss may ask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say, "Hey, come on. I am above that." Sweep the floor.

온갖 일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이 아이들이 좋은 태도로 웃고 즐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키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것은 믿을수가 없네.” 왜 그런가요? 내가 마치 주께 하듯 하기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상사가 마루 청소를 하라고 하면 “여보세요, 나는 그 보다 더 높은 직위예요.” 라고 대꾸 할것입니다.

“Are you kidding?” I used to work for Alpha Beta markets. In my work for them I was called on to do just about everything. I was going around to the various stores, substituting for managers and all kinds of work. Anything that would come up they would call me to hotshot for them. Sometimes I would go into the store and it would be filthy and so the janitor wouldn't be there.

“농담하는 건가요?” 내가 알파-베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메니저 대리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닦치는 대로 나를 불러서 시켰습니다. 때로는 청소부도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I would go ahead and clean the restrooms and sweep the floors. I thought, “If they want to pay me what they are paying me, I don't care what I do. I will sweep the floors or whatever.” I developed a reputation of a guy that will just go for it. Because I was doing it as unto the Lord and I figured they are paying for my time, and so I will do what they ask of me when I am here, without complaining or murmuring. That is exactly what we are told to do here. Do what you do as unto the Lord, not to please men but to please the Lord, as a good witness for Him.

나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쓸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급하는 돈을 주는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 바닥을 쓸든지 무슨 일이나 할거야.” 나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 하듯 하였고 그들은 시간제로 내게 지불했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없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것을 할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께 하듯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하십시오.

With good will doing service, as to the Lord, and not to men: knowing that whatsoever good thing any man does, the same shall he receive of the Lord, whether he be a slave or a free man (6:7-8).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로운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6:7-8).

I am ultimately looking to the Lord for my rewards for my life and for my work.

결과적으로 나의 삶이나 나의 일에 대한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And so, you masters [if you are in the position of an employer], do the same things unto them, forbearing threatening: knowing that your Master also is in heaven; neither is there respect of persons with him (6:9).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너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6:9).

In the early church when slavery was such a popular thing, it was quite interesting because many of those in the early church were slaves. Many of those in the early church were masters who had many slaves. The interesting thing was, is that here is a fellow that all week long is taking orders from his master and he goes to church and he is the elder in the church and his master is just one of the people in the church, and the whole order was reversed when they got to church. With God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we are all one before Him.

노예 제도가 유행했던 때 초대 교회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많은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한 주간 내내 그의 주인의 명령을 받다가 교회에 가면 그는 교회의 장로이고 그의 주인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갈때엔 그 순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입니다.

Finall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Stand therefore (6:10-14),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지금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10-14).

So we now come to the final section of the book, the warfare of the believer. The first three chapters Paul dealt with the wealth of the believer. The next two and a half chapters Paul dealt with the walk of the believer. Now he deals with the warfare. Or, in the first three chapters he dealt with the position, seated with Christ. In the next two and a half chapters he dealt again with the walk, and now he deals with standing.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믿는 자의 전쟁에 왔습니다. 바울이 처음 세장에서 믿는 자들의 부를 다뤘습니다. 다음 두장 반에 걸쳐서 믿는 자의 행함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싸움을 다룹니다. 혹은 첫째 석장에 걸쳐 위치 죽 그리스도와 앓는것을 다루었고 다음 두장 반에서는 다시 행함을 다루었으며 이제 서는것을 다룹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Know that you don't have the strength in yourself; it is the Lord who gives me strength. Apart from Him I can do nothing, bu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So Paul sees the Roman soldier dressing himself for war, and we as Christians are in a warfare.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당신 자신에게는 힘이 없음을 아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를 떠나서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전쟁을 위해 차려 입은 로마 병정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It is a spiritual warfare,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which are spirit entities; they are captains and lieutenants of the demon ranks. They are called principalities, powers, authorities, dominions, and they have various rankings of evil spirits. That is where the real warfare lies, in the realm of the spirit, fighting these spiritual battles.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세와 능력과 권세와 주관자로 불리며 악령도 여러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 진정한 전쟁이 있으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And thus,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spiritual weapons. It is a spiritual battle. It cannot be fought with physical weapons. We must arm ourselves with spiritual weapons.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the spiritual wickedness in the high places. So you have to take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ight be able to stand in that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just stand.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물질적인 무기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능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Therefore, as we arm ourself, the first bit of armament that we put on is the

truth (6:14),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무장할때 전신갑주의 제일 먼저 입어야 할것은,

진리 (6:14)

Because the enemy is always coming with his lies. Jesus said that the devil is the father of all lies. And he tries to lie to you about God, about the nature of God, about the character of God, about the attitude of God towards you. He tries to lie to you about God's attitude towards sin. "Oh, it really doesn't matter. You can get by with it. God will judge you. God will forgive," and so forth, and he presses the point of causing you to use the grace of God as a cloak for lasciviousness, deceiving yourself. The truth—it's important that I be armed with the truth.

적은 항상 거짓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려고 시도 합니다. 사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오, 그건 실제로 문제될것 없어. 그냥 넘겨 버려도 돼. 하나님이 심판 하실때 용서해 주실거야" 등등, 그리고는 당신에게 압력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행위나 스스로 속임의 핑계로 사용하게 하는 곳까지 밀고 갑니다. 진리 - 진리로 무장하는것은 중요한것입니다.

Secondly,

두번째로,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6:14);

의의 흉배 (6:14)

That commitment in my heart to do that which is right before God. I have got to have that as just a commitment of my life. I want to do the right thing. Not to observe the situation and then determine which way I will balance. But just have that determination that I am going to live a right kind of life. Righteousness.

하나님앞에 옳은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서약으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상황을 관찰하다가 균형을 맞추어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 (의로움).

Righteousness actually constitutes the right actions towards those around me. And unrighteousness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toward my neighbor. Godliness is doing the right thing towards God.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Ungodliness is the wrong relationship with God. There is ungodliness,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unrighteousness, my relationship with man.

의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옳은 행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불의는 내 이웃에 대하여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일을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불 경건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Now he is talking here about righteousness. I have got to have that just as a basic foundati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 am going to do as best as God enables me the right thing. I want to live right.

이제 바울은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기초로 의의 흉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Your feet sho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6:15);

It is God's desire that we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and with Him. We live in a world that is filled with strife. We talked about marriage relationships, but how many homes are so filled with strife. The atmosphere is continually tense as we are failing to obey the scriptures in submitting one to another in love.

But we are trying to dominate over each other; we are trying to rule over each other, and there is no love involved. We get to arguing over the most ridiculous things and we won't give in. We won't yield the point, we will press our point, get the last word in, leave a sour taste. And yet, as the scripture says, "That yielding will pacify great offenses."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에 대하여 얘기 했습니다만 다투면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지만 불순종 할때 분위기는 계속해서 더욱더 긴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할뿐 그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도 양보하지 않고 다툽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끝내 씩씩한 마지막 말까지도 해버립니다. 성경은 “양보하는 것이 다툽을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w many times in a tense situation where there is just the drawn sword and the clash taking place can the whole issue be diffused by just one person saying, "I think you are right. It is stupid to go on arguing like that. You are

probably right." It just diffuses the whole thing. Suddenly the strife is gone. Why do we find that so hard to do? To admit to being wrong, or to admit to the other person possibly being right. Even when we know they are wrong. Help us, Lord.

칼을 뽑고 충돌 하는 긴장 상태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그래, 당신이 옳소. 바보같이 이렇게 다투네. 당신이 옳은것 같아요” 라고 말함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진정되고 다툼도 돌연히 끝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피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것을 알때에라도 그러합니다. 주여, 도와 주소서.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6:16),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6:16)

That faith and confidence in God is what is being talked about here.

wherewith ye shall be able to quench all the fiery darts of the wicked (6:16).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환전을 소멸하고 (6:16)

Satan is constantly attacking us. My faith in God, God's ability, God's power, God's working in me. I can stand against these attacks of the enemy.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끊임 없이 공격합니다. 나는 이러한 적의 대항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6:17),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6:17)

Thank God I have been saved through Jesus Christ from that tyranny of a life mastered by the flesh. I have been saved in order that I might walk in fellowship with God through the Spirit.

폭군 처럼 나의 삶을 지배하던 육에서 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된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And finally,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6:17):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6:17)

Not finally, but next,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s Word is a tremendous defense against sin. John said,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wicked one, because His Word abides in you." The power of God's Word within my heart against sin, it is the greatest defense that I can have in this spiritual battle that I am in. God's Word hidden in my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방어책입니다.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죄와 대항합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었습니다.

And then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Praying (6:18)

기도하라 (6:18)

What a powerful spiritual weapon prayer is. In this spiritual warfare, prayer is often the deciding factor in the spiritual battle.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Praying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watching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and for pray for me, [Paul says,] that utterance may be given unto me, that I may open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6:18-19),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18-19)

Interesting that so often in the early church their prayer was for boldness and proclaiming the truth of God. The reason for that being the heavy persecution against those who were proclaiming the gospel. Imprisonment often, oftentimes killed.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range as many as six million people were put to death for their faith in Christ in the first 270 years of the church's existence. Some six million people martyred. That is why, no doubt, they needed boldness, because my witness may cost me my life.

재미있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빈번히 기도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빈번히 투옥했고 또 죽임도 당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 처음 270년 동안에 약 6백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6 백만명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러한 이유로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야 했습니다. 나의 증거로 인하여 내가 죽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 can be intimidated by that kind of pressure into silence. In the early church after one of the first persecutions, when the disciples were beaten and told not to speak any mo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arned severely not to preach anymore, they came to their own company having been beaten, and they shared with them the experience that they had before the magistrates, and they said, "Let's pray that God might give us boldness to continue to speak the truth."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압력을 주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구타 당하고,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호되게 얻어맞은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와서 그들이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So they prayed and the place was shaken an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went forth boldly proclaiming the truth. Paul is praying, asking for prayers that God will give me boldness in utterance, opening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이 흔들렸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For which [he said] I am an ambassador in bonds (6:20);

이 일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6:20)

For which I have been placed in prison.

나는 형무소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and that I may speak boldly, as I ought to speak (6:20).

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20)

That I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is imprisonment, by the persecution, by the beatings, but that I will continue to speak boldly for Jesus Christ as I ought to speak.

I think so many times of our attitudes when someone has given us a dirty look or someone has put us down because we testified of Jesus. "Oh, are you one of those Jesus freaks?" We keep quiet.

나는 투옥이나 박해나 구타 를 두려워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담대히 전할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췌려 보거나 우리를 깎아 내릴때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당신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 중의 하나구면"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 대꾸도 안합니다.

We have been intimidated by someone's remark. Imagine what they went through in the early days. Here is Paul in prison because he has been proclaiming the gospel, and he is saying, "Please pray that God will give me boldness to speak as I ought to speak. That I won't be intimidated by the fact that I've been thrown in prison, that my life has been threatened, that Nero is going to take my head." What we need is the grit of those early apostles.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 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그들이 당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담대함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 가거나 내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네로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But that you may also know my affairs, and how I am doing, Tychicus, a beloved brother and faithful minister in the Lord, will make known to you all of these personal things about me; whom I have sent to you for the same purpose, that he might let you know our affairs, and that he might comfort your hearts. Peace be to the brethren, and love with faith, from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6:21-23).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지어라 (6:21-23).

Peace and love, these glorious gifts of God. And then finally,

평화와 사랑, 이런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Grace be with all them that love our Lord Jesus Christ in sincerity. Amen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라. 아멘 (6:24).

Next week we go into the Philippians epistle. It is called the prison epistle, because Paul wrote it from prison. Now, if you had a friend thrown into prison with an indeterminate sentence, what kind of a letter would you expect to get from him?

It is interesting that the epistle of the Philippians is the most joyful epistle in the New Testament, in which he is continually urging them to rejoice in the Lord.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next week. You'll find it very rich, very blessed, very full.

다음 주에서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친구가 무기 징역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끊임 없이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즐거운 서신입니다. 다음 주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그것이 아주 풍요롭고 복 되고 넘치는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Now may the Word of God abide in your hearts richly through faith, that you might comprehend the length, the breadth, the depth, the height of God's love for you. And that you might live in fellowship with God as light in a dark place, so may your life give forth of the beauty and the radiance of Jesus Christ that it might bring hope unto others. May God use you as His instrument this week. In Jesus' name.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살면서 당신의 생활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